

‘때문은 대책’으로 물가 잡겠다고?

정부 ‘물가잡기’ 새로운 내용 없어 고민 공공요금 동결·할당관세 조정도 ‘재탕’

정부가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어 물가 대책을 집중 논의했으나 공공요금 동결, 할당관세 조정 등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 외에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대책 ‘재탕’ ‘삼탕’ = 정부가 이날 내놓은 물가안정 방안은 기존에 밝힌 대책에서 별로 진전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공요금 동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50개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 등은 올해 초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열린 정부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에

서 이미 밝힌 내용들이다.

이 같은 직접규제 방식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힘들다는 분석도 이미 나와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물가로 여겨지지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요금동결은 추후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50여개 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라는 직접적인 시장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60,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생필품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는 물자공

급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70여품목 무세화도 효과 미미 =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곡물과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하거나 아예 관세율을 0%로 낮출 방침이다. 82개 가운데 90% 이상인 70여개 품목의 무세화(無稅化)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확대와 조기 인하는 지난 5일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실천 계획’을 비롯해 지금까지 계속 거론된 내용인데다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품목과 인하 폭이 확정되어야 가늠할 수 있다.

◇뾰족한 대책 없어 고민 = 정부가 물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번 경제위기가 기본적으로 외생변수에

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에서 원유, 원자재,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물가를 정책적으로 방어하기엔 한계가 있다.

70년대에나 불발한 철근사재가 단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레미콘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미 건설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져 앞으로 공사지연이나 공급물량 부족, 이에 따른 부동산값 불안 등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내놓은 학원비 단속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영아교육 열풍이 불어 사교육비 부담은 더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물가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적절한 상황 인식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석 10대 광주은행장 취임 1년 특별기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대출 중 수도권 대출이 107조원 증가하여 전체 신규대출인 142조원의 75%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과 경제활동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별 전략산업육성 등 지역경쟁력 미려 성장동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초점이 금융회사의 대형화에 맞춰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약화되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능력이 위축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마다 다른 경제구조 속에 그 근간이 되는 지방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는 지역경제의 자립이 이루어

지고, 결국 지역경제 성장의 정체를 가져온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재무부 명도가 약하기 때문에 금융조달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지역금융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도 지방자치체와 지방중소기업, 지방은행 간의 삼각연대체제를 통해 지방은행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지방자치체의 공적자금을 지방은행에 위탁하여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주거태은행을 지방은행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마땅히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라면 지방은행에서 자금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금융회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여도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지방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은행의 역할

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은 지역금융시장을 둘러싸고 금융기관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가 금융구조의 핵심논리로 등장하면서 지역금융기관은 매일 생존을 위협받는 형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이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금융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역자금을 지역 내로 환원시키고 역외자금을 지역의 산업자금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개발에 공헌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의 양극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금융에 대한 선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 즉, 법원공탁금이나, 교육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을 해당 지방은행으로 공급하여, 이 자금이 다시 지역 기업과 가계에 공급되는 '자금공급의 선순환 구조'가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지역에서 생산 및 금융활동으로 조성된 자금이 지역 경제활동에 재투입 되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면, 생산이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어려워

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이 60%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기여도가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높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점은 지방은행으로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미국은 지역내 재무자법(CRA)을 도입하여 이익을 얻은 곳에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방에 소재한 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전략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류의 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은 선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키워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금융의 비법칙을 증명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즉, 지방은행이기에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불균형적인 국가발전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지방은행이 지방에서 생산 및 금융활동으로 조성된 자금을 모색하고 적용하여,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美 자동차 구매 가이드북 현대·기아 차종 가장 많이 올라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유력 자동차 구매가이드인 '카북'(The Car Book)의 최우수 추천 차종목록에 경쟁사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차종을 올렸다.

20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카북 2008년판에 실린 총 45개의 추천 차종 가운데 기아차 7개, 현대차 5개 등 현대·기아차 12개 차종이 포함됐다. 현대·기아차가 카북 최우수 추천 차종수에서 1위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차종은 현대차의 베르나·아반떼·쏘나타·투싼·양트라지 등이며, 기아차의 프라이드·프라이드 5도어·세라토·세라토 유로·로체·스포티지·쏘렌토·그랜드 카니발 등이다.

현대·기아차에 이어 혼다그룹이 혼다 6개, 아쿠라 4개 등 10개 차종으로 2위에, GM(GMC·캐딜락·시보레·부익)이 8개 차종으로 3위에 각각 올랐다. 도요타는 1개 차종이 선정됐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리빙 인테리어 용품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08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화려한 색깔로 디자인된 리빙 인테리어 용품들을 구경하고 있다. 디자인페어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조짐

우리 0.1%P·하나 0.07%P 1했다.

최근 은행권이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낮춘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다시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CD연동정기예금인 '오렌지정기예금'의 가산금리를 0.1% 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6개월 만기 상품의 금리는 CD금리와 곧바로 연동되도록 해 19일 기준 연 5.26%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 6개월 만기 상품 금리는 CD금리에 0.1%포인트를 차감한 금리를 적용했다. 또 12개월 만기 상품에 CD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해 연 5.46%가

적용된다.

CD 금리는 지난 1월 10일 연 5.89%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 이달 3일 연 5.17%까지 급락했지만 지난 12일부터 상승세를 나타내 19일 현재 5.26%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시중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6개월 정기예금은 지난 주 연 5.38%에서 이번 주 연 5.45%로 0.07%포인트 상승 조정했고 1년 만기에 금도 연 5.64%에서 연 5.76%로 올렸다. 다른 은행들은 시중금리의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제선 항공요금 최대 7만원 인상 내달부터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료가 최대 7만 원까지 크게 오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한달동안 항공요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현재보다 5단계 높이기로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럽 노선은 왕복 항공요금을 기존보다 7만 원, 중국 노선은 4만 원, 일본 노선은 1만 6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국제선 항공요금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하면서 1월에 유럽 왕복 항공료가 10만 원까지 인상됐다가 3월에 소폭 내렸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항공료가 다시 오르게됐다.

대한항공은 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으로 86달러에서 122달러로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대부분의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하는 사이판의 유류할증료를 기존 20달러에서 28달러로 인상한다. /연합뉴스

산업은행 연내 지주회사 전환

매각 대금으로 정책금융 전담기관 설립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한 뒤 내년부터 민영화작업을 시작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서초동 금융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연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자본 매각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해 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매

각 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 전담기관인 가칭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를 설립해 필요한 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영화 지연, 공적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등 부작용이 예상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光銀 800억 유상증자

광주은행이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협약인 '바벨2' 시행에 맞춰 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우리금융지주는 20일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해 각각 800억원, 1천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은행의 증자는 올해 '바벨2' 시행으로 인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막고, 은행의 재무건전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경련-中企중앙회 “납품단가 현실화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공사 단가와 정부조달 물품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양 단체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원자재 추가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납품단가 분쟁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과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

장 등 양 단체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관공사 및 정부조달 물품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레미콘 가격 조정 등 건설업계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창구인 건설자재협회의 협상참여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기술 및 연구시설 제공, 중소기업 인력재교육,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 및 판로지원 등 협력사업을 강화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연합뉴스

유가·곡물가·금값 일제히 급락

美 신용위기 여전 상품 매도세 가세

그동안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국제 유가와 금값, 곡물가를 비롯한 상품가격이 19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전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함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신용위기 우려도 여전한 것 등이 현금 확보를 위한 상품 매도세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전날보다 4.94달러(4.

5%) 떨어진 배럴당 104.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에는 배럴당 102.95달러까지 떨어지며 199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다.

금값을 비롯한 금속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이날 59달러(5.9%) 떨어진 온스당 945.30달러를 기록해 2006년 6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17일 온스당 1천34달러에 달하기도 했던 것에 비해서는 90달러나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도 급락해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밀 가격은 가격제한폭인 90센트(7.7%)나 떨어진 부셸당 10.74달러에 거래됐고 옥수수 와 콩 등도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리메디칼	병원 마케팅 및 관리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262-300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신입 및 경력 FSR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457-4400
☎웨이즈	디자인 소빙물 바보시형에서 웹프로그래머 채용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3/24	062-717-5036
두메푸드시스템☎	[외식부] 영양사 경력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571-6000
곰두리봉사회자활자립장	학교 공문발송, 제품홍보 상담 여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200~1400	03/24	062-710-1503
☎HRN	[SK텔레콤 114인바운드 상담원]연봉2200만~주5일근무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3/24	062-529-2671
☎pose21	일반사무 및 회계 여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24	062-266-0021
씨에너스	젊은 마인드의 웹 프로그래머를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514-4741
천일정기회물자동차☎	총무 및 단속 관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5	062-361-2340
진은산업	축산직 펠링 및 직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6	062-601-6169
조은종합물산☎	배달 및 영업사원(상품인출및고래고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8	062-603-1111
토익건설☎	경리, 회계사원 모집합니다.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8	062-604-1336
미림건설☎	본사 공무, 현장관리 경력직 모집	초대졸/경력2년	2200~2400	03/28	062-511-2005
현지테크	성형원/영동연식/선반 신입경력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3/31	062-941-2085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